

칼럼

김운호 논설위원 · 행정학박사 · 국회출입기자포럼 회장



‘집콕’ 생활에서 배울 것과 해야 할 것들

예전에는 어떤 사정으로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방 안에만 꼭 박혀 있는 것을 ‘방콕’이라고 부른 적이 있다. 지금은 코로나19 전쟁으로 손 자주 씻기, 마스크 쓰기, 기침 가리고 하기 등과 함께 자가 격리와 사회적 거리 두기가 코로나 감염 예방의 최선의 방법으로 공인되어서 집 안에 있는 ‘집콕’이 정부 방역당국의 법적인 명령이고 강력한 권고사항이기도 하다.

4월 7일 현재, 우리나라는 코로나 1만명의 확진자와 192명의 사망자로 선방(善防)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132만명의 확진자와 7만3천여명의 사망자가 나왔다. 세계 최고의 선진국가인 미국은 우리나라 보다 늦게 코로나가 상륙했는데, 132만여명의 확진자와 1만여명의 사망자, 스페인은 13만5천여명의 확진자, 1만3천여명의 사망자, 이탈리아는 13만6천여명의 확진자, 1만6천여명의 사망자, 독일은 10만여명의 확진자와 1천6백여명의 사망자, 프랑스

는 9만8천여명의 확진자와 8천9백여명의 사망자, 중국은 8만1천여명의 확진자와 3천3백여명의 사망자를 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 전염병은 전대미문(前代未聞)의 대 재앙(災殃)이다. 우리 인류는 수많은 전쟁, 수많은 질병이 많았지만, 옛날에는 세계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지는 교류 왕래가 적어서 전염병 피해는 지역적으로 국한될 수도 있었다. 지금은 교통 통신 수단이 최고도로 발달한 시대라서 빠른 시간에 전세계로 전파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 사태를 '1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참담한 재앙'이라고 하면서 40여개 주요 국가에서 오는 사람들의 입국을 봉쇄했다. 1957년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프랑수아즈 캉유스(1913.11.7~1960.1.4)가 쓴 소설 '페스트'가 다시 읽히고 있다. '페스트'에서 지금 코로나

로 병들고 고통받고 격리되고 가짜뉴스가 판치고 죽어가고 시체를 미처 못 치워서 거리에서 부패해 가는 현실을 묘사해 놓았다.

코로나 시대, 70여일이 넘는 집콕 생활에도 방역당국은 언제나 '앞으로 2주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나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우리 모두를 위하여 지켜주고 따라주고 협조해주어야 한다. 정말 목숨 걸고 무겁고 힘겨운 방호복과 고글 등을 착용하고 2시간씩 코로나 환자들의 병동에 들어가서 상태를 진단하고 치료하고 식사도 챙겨주고 심지어 대소변까지 처리해 주면서 사투(死鬪)를 벌이고 있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고개 숙여 깊이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세균 보다도 더 작은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은 언제 누구에게서 전염될지 모른다. 진실로 코로나시대의 참된 영웅들은 대한민국 의료진들이다.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키고 자가 격리와 외출 자제를 당국에서 그렇게 당부하는데도 확진자 관정을 받고도 당국의 지시와 지침을 무시하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서 법적인 처벌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코로나 증상이 없는 사람들도 집콕 생활이 길어지자 답답하기도 하고 당국의 당부가 약발이 떨어졌는지, 봄꽃 구경하러 주말이면 외출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집 안에 많이 머물고 있는 집콕 시대에 이구 동성으로 하는 말이 하나 있다. '행방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일상적이어서 그 소중함과 고마움을 모르는 것이 많다. 한 시도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공기도 있고 없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건강도 있고, 우리 삶의 뿌리인 부모님과 가족의 소중함과 은혜도 있다.

'있을 때 잘 해!' 라는 노래도 있다. 자신을 낳아 주시고 키워 주시고 가르쳐 주신 부모님의 은혜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야 더욱 절절히 깨닫는 경우가 많다. '평상심이 곧 도(道)'라는 말처럼 우리의 일상 하나 하나가 너무나 소중하고 곧 삶의 갈 길(道)이요, 진리이다. 우리는 날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 모든 일을 진심으로 소중하게 알고 감사와 성실로 대하지 않으면 안된다.

社說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몽니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막판 결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부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정부가 전년 대비 최소 13% 인상안을 제시했지만, 트럼프는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이 더 큰 비율로 부담해야 한다고 노골적인 압박을 거듭하고 있다. 그의 애초 요구액은 작년 1조3899억원의 무려 5배가 넘는 6조3000억이다. 협상이 없다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액수다. 13% 인상은 작년 인상률 8.2%와 비교해 엄청난 증액인데 여전히 트럼프는 상식 밖의 행동을 하고 있다.

트럼프는 부자나라이 한국을 방어하는데 미국이 손해볼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한다. 오랜 세월 유지돼 온 방위비 분담 기준을 하루아침에 무시하고 손바닥 뒤집듯 바꿨다. 양국 협상단과 관계 장관들 앞에서 13% 안에 잠정 합의한 것도 한국 측이 많이 양보했고 미국 실무진도 이해했기 때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몽니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자국 내에서도 괴망청

구라는 비판이 잇따른다. 며칠 전엔 미국 민주당 외교·군사 분야 중진의원들이 국무·국방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한국 측 제안 거절을 언급하며 공정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선에서 조속히 타결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의 잠정합의안 거부 공식화로 협상이 지지부진해질 것 같다. 트럼프 대통령의 완고한 인식과 대폭 증액 의지가 재확인된 데다 11월 대선을 앞둔 그의 운신 폭이 좁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트럼프는 코로나19 사태로 수세에 몰려 있는데 분담금 대폭 증액을 실현하겠다고 호언장담한 협상에서 양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협상 지연으로 한미동맹관계와 군사 준비태세 약화 우려는 물론이고, 지난 1일 시작된 주말 세일 유지돼 온 방위비 분담 기준을 하루아침에 무시하고 손바닥 뒤집듯 바꿨다. 양국 협상단과 관계 장관들 앞에서 13% 안에 잠정 합의한 것도 한국 측이 많이 양보했고 미국 실무진도 이해했기 때문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몽니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 자국 내에서도 괴망청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국법 몰라 범법자 신세 탈북민 법률적 인식차이 줄여야

국내 정착 일부 탈북민들이 국내법을 자세히 몰라 의도치 않은 범법자 신세로 전락하면서 통일시대를 대비한 법률인식 차이를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각양각색 인종과 수많은 나라가 존재하는 현 시대에는 각 국가별로 범죄행위에 대한 다양한 법적 체제와 처벌이 존재하고 있다. 어떤 나라에서는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또 다른 나라에서는 불법행위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말이다.

이러한 어떠한 상황에 대한 법률적 인식차이는 우리나라와 북한의 법체계에서도 존재하는데 국내 입국정책 일부 탈북민이 북한에서 살던때처럼 아무렇지 않게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위가 결국은 이를 범죄로 규정한 국내법에 저촉되어 범법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경찰에 임진되고서야 깨닫게 되는 안타까운 경우도 발생하곤 한다.

국내 언론에 보도된 사례를 보더라도 한 예로 국내에서는 엄연히 여성에 대한 강제적 신체접촉

을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북한에서는 여성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이 없었기 때문에 여성의 신체접촉을 시도하여 경찰에 체포가 되거나 북한에서 암암리에 민간요법으로 통하는 병치료에 마약성분 사용 하는 습관을 국내에 정착하고서도 사용하다 국내법에 의해 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경찰에서도 이렇듯 국내법을 잘 몰라 범법자로 양산되는 탈북민 최소화를 위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국내 입국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및 여성안전 범죄 대처방법 등 차별화되고 내실있는 탈북민 범죄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각 지역별 경찰서 신변보호관이 탈북민들과의 잦은 만남을 통해 최근 범죄발생 추이 및 범죄피해 예방 요령 등 홍보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무엇보다 탈북민 자신과 가까운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통한 남북한 법률적 차이 인식 극복에도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

힘겹게 사선을 넘어와 내 이웃으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탈북민들이 무난하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떳떳하게 살아갈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덕형 / 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 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이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콜류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사제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건설업(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수집·운반)
석면해체·제거업

신원건설산업(주)
신원자원 (자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예향로 3230
TEL: 061)333-6832 FAX: 061)334-7701
광주사무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도산길 62-4